# 기가(Giga)급 하늘 연결 상태

## (열왕기하 11:4~21)

13.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14.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15.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16. 이에 그의 길을 열어 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17.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18.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19.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20.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21.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칠 세였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기가(Giga)급 하늘 연결 상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기가(Giga)급 하늘 연결 상태'

이 땅에서 하늘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선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연결에는 기가(GB)급, 메가(MB)급, 킬로(KB)급 연결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연락이 필요할 때나 급할 때에 비상시에 봉홧불 같은 수단을 이용하였습니다. 변방의 경비병들이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발견하면 봉화를 피웁니다. 그러면 산봉우리마다 준비되어 있던 봉화를 지키던 군인들이 앞쪽 봉우리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불 피우기를 반복하여 임금님이 사시는 도성까지 연락을 하게 됩니다. 또 파발마도 있었는데 요즘 공무원에게 허

락된 관용차 같은 말을 타고서 연락을 했습니다. 전서구(傳書鳩)라는 연락용 비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모스부호를 이용하는 무선통신이 나오고 유선전화도 나오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연결을 하려고 애쓸 필요조차 없이, 전 세계가 인터넷을 통하여 24시간 연결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말을 타거나 비둘기를 띄울 필요도 없고 전화기를 들 필요도 없고 단말기만 열면 전 세계가 눈앞에 있습니다.
인터넷의 데이터 전송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킬로바이트 급의 인터넷 속도였을 때에는 동영상 하나 올리기 위해서는 서너 시간씩 걸렸지만, 이제는 100메가바이트 급의 광랜을 통해서 쭉쭉 올라갑니다. 또한 그것도 모자라서 광랜보다 10배 더 빠른 기가바이트 급의 인터넷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연결 방법의 발달과정을 비유적으로 하늘 연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민의 하늘 연결은 특이하게도 3500년 전에 이미 메가급 연결이 개통되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2000년 전에는 기가급 연결이 개통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를 다니는 선민들은 봉홧불, 파발마, 전서구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문제입니다.
봉화는 필요할 때에만 피우는 것인데 완전히 하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살다가 내 삶에서 급한 일이 생길 때에만 봉홧불을 피우듯이 기도를 합니다. 또한 예전에 유선전화기가 동네에 한 집에만 있던 시절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나 전화를 걸어서 가족들과 연결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요즘 교회가 이렇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늘 연결을 끊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늘 연결을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서는 이미 3500년 전에 메가급 기가급의 연결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여 만들었던 회막이 선민들의 마음을 스마트성전으로 만드는 설계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메가급 속도를 가진 하늘 연결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전의 모든 설계와 구성의 의미가 십자가에서 완성됨으로 인해 기가급 연결망이 개통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봉홧불을 피우듯이 하늘과 연결을 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메가급 기가급 연결망을 통해 하늘과 연결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기가급으로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직도 봉홧불이나 온 동네에 전화기 한 대밖에 없었던 시절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야호야다는 왕자 요아스를 아달랴의 칼로부터 구해 6년 동안 성전에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에 백부장들과 호위무사들을 설득합니다. 남 왕국의 유다 땅에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 시집을 온 아달랴가 왕이 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면서 반기를 들게 합니다. 다윗의 혈통을 잇는 적통세자가 여기 살아있다고 요아스가 살아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요아스를 왕위에 옹립하고 아달랴와 그 추종자들을 죽였고, 바알 신전을 허물며 바알 제사장 맛단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요아스를 길렀다는 것은 선민의 마음의 모양이 여호와의 성전의 설계와 구성대로 갖추어져야 함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한 이렇게 마음이 스마트성전의 모습대로 되어서 기가급의 연결이 이루어질 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기가급으로 하늘과 연결이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세 가지 경우를 보여주는데 요아스, 여호야다 제사장, 죽임당한 바알의 제사장 맛단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역사적 시대 순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을 순서 없이 쓰셨습니다.

첫째, 이제 7살에 왕이 된 요아스입니다.
왕의 자리는 부와 권력 등 한 나라에서 통용 될 수 있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들이 집결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 등극하기도 전에 갓 태어난 아기가 6년 동안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이 땅에서 하늘과의 연결 지점입니다. 하늘과 연결된 아이가 세상의 모든 가치가 집결된 왕의 자리에 등극하였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들에 눈뜨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맛에 눈을 떴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돈 학벌 명예 외모 명품 승진 등 맛있는 가치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에 눈뜨기 전에 하나님 맛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배부르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제일 맛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공감하며 동의하고 결심하고서도 하나님 맛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서도 내가 등진 이 세상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풀릴 것이라는 은근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초콜릿을 먹은 후에 사과를 먹으면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은근한 기대가 초콜릿이 됩니다.
자녀에 대해 죽고, 사업에 대해서도 죽었다고 하면서 그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대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 맛을 느끼는 동안에는 사과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가급으로 하늘과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맛봅니다. 하나님이 초콜릿이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사과가 맛이 없어지고 하나님으로만 충분히 배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기대를 초콜릿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이라는 사과를 맛있게

먹으려고 해도 맛있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요아스는 세상의 모든 맛좋은 가치가 집결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나, 태어나서부터 일곱 살까지 성전에서 자라며 먼저 하나님 맛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메가급 기가급으로 하나님 맛을 먼저 보게 되면 세상을 맛없게 느낍니다.
목사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사람들이 떼로 몰려드는 광경이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일 때에 다 떨쳐버리시고 기도하러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느끼셨던 세상의 맛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달랐던 것입니다. 기가급으로 하늘과 연결되셨던 예수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맛보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임금 되는 것이 초콜릿 뒤의 사과처럼 맛없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둘째,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기가급으로 하늘과 연결된 상태가 어떠한지를 가르쳐주십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고모부였기 때문에 왕이 된 요아스의 뒤에서 섭정을 하며 권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연결에 모든 관심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아스를 길러서 왕으로 삼았으니 그것을 권력으로 삼아 세상의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으나, 여호야다는 오직 어린 왕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처럼 하늘과 기가급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연결에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누가 회장이 됐고, 얼마의 순이익을 남겼다든지 혹은 사람을 죽였다는 소리를 주로 하지만, 하늘과 기가급으로 연결된 사람은 이런 뉴스를 볼 때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입니다. 하늘과 연결되지 않은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죽이는 인면수심의 괴물들의 소식을 들을 때에도 그 이유가 하늘과 연결이 끊어졌음을 압니다. 평소에는 멀쩡한 모범 시민이었던 사람들이 추석 때에 모이면 부모님의 재산을 놓고 싸움질하다가 살인에 이르는 것도 하늘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성공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하늘과의 연결이 없음을 보고 측은해하고, 실패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음을 보았다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자녀가 서울대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없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지방대학 갔다고 실망하고 있을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과 연결만 된다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확신하며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가급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보여주는 가치관이며 소신이고 신념입니다.

셋째,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맛단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바알 신전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만사의 불행의 이유가 그 바알 신전에 있음을 꿰뚫어봅니다. 기가급의 하늘 연결이 끊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갇힌 이유는 곧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부활과 승천을 따로 떼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부활 승천의 과정을 통하여 마음이 따라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갇혀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결국 끊어지는 것도 연결되는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 해야 부활과 승천까지 따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십자가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부활과 승천은 역사적인 일로서 종말론적 먼 미래의 일로 받아들입니다.
언젠가는 따라가야겠지만 지금은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것이 세상을 사랑함이고 바알 신전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평면적 미래의 일이 잘 될 것을 선전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대표가 바알의 선지자 맛단이었습니다.
기가급으로 하늘과 연결이 되고나면 이단을 분별하는 것이 쉽습니다.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정한 자들은 이단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분별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문제는 교단 내에 들어와 있는 이단적 사상과 이단적 목사님과 이단적 장로들 이단적 권사들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관심이 땅에 꽂혀 있다면 바알의 선지자 맛단과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처럼 그들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바알 숭배와 바알 신전을 죽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고 십자가를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기가급으로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기가급이냐 메가급이냐 킬로급이냐 봉홧불이냐 파발마냐를 결정합니다. 일 년에 부활절에 고난주간에 세례식에나 가끔 십자가 설교를 하고 듣는다면 봉홧불 수준에 불과할 것인데 이래서는 연결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맛이 마음에 감도는 동안에 십자가를 붙잡고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는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만으로 배 부르려고 살기 위해서라면 평생을 아프고 가난하게 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형통과는 무관하게 살지라도 상관없다고 배수진을 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맛이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며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끝낸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하나님 맛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대로 모든 것이 다 없고 앞으로 생길 것 같지도 않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

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은근한 기대가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김태희 씨같이 아무리 예쁜 사람이더라도 하늘과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인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인물 때문에 더 망할 뿐입니다. 유재석 씨같이 꾸준히 잘 나가는 국민MC가 된 사람일지라도 하늘과 연결이 안 되어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굴곡 없이 하늘과 연결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차라리 인생의 굴곡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게 낫습니다. 기가급 하늘과 연결된 상태를 항상 유지하며 남은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더 조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